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다시 광장이 열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에도 잔주름 많은 어머니의 손에도 촛불이 들렸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열원의 촛불입니다. 광장 민주주의, 시민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산업화의 시대를 연 72년 체제, 민주화 시대를 펼쳐놓은 87년 체제의 끝이 왔다고 진단합니다. 어떤 시대라고 아직 이름 부를 수 없지만 새로운 시대를 여는 16년 체제를 전망합니다. 촛불에 담긴 모두의 열원처럼 촛불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은 청년입니다.

촛불 광장의 한복판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취업준비에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잔뜩 움크리고 주눅 들어 있던 청년들이 어깨를 펴고 외쳤습니다. 청년들의 외침은 "절망하는 삶을 벗어나고 싶다. 희망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현실로 커지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기뻐했습니다. 아프지만 설렘했습니다. 청년정신이 새 시대와 함께 되살아난 것입니다.

광주는 정의로운 역사의 한복판에 섰던 당당한 이름입니다. 광주의 이름으로 광장에서 정의를 외친 이들은 청년입니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청년이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청년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폭압에 저항했고, 군부독재의 폭거에 맞섰습니다. 도도한 역사를 이끌어온 광주의 '청년성'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증명해온 청년성을 회복하고자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벅겁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일할 수 없고, 자립하지 못하고, 참여할 기회마저 부족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온 세상이 청년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낮잠 없이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는 학점, 어학공부, 대외활동, 자원봉사까지 학업과 스펙 쌓기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 기다리는 것은 취업난과 대출받았던 학자금입니다. 자신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자조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담겨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집을 줄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을 말하지 못합니다.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뚜렷하게 일하면서 당당하게 누리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자립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왜 이리 힘든 일이 되었을까요?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 왜 사치스런 행위가 되었을까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청년들의 무거운 어깨를 볼 때마다 느끼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오래 전부터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150만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의 길에 나섰습니다. 청년, 청소년, 어린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광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청년이 행복하지 않은 광주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를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했습니다. 자립의 전제 조건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일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청년이 지역의 주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반을 놓았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는 여러 방법들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미래로 옮겨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래로 가는 다리에 청년들이 희망

을 심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대학생 올림픽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인예술시장의 활력을 청년셀러, 청년예술가가 채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창업 모델을 실천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직은 광주청년 44만 명 전부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커져갈 거라고 믿습니다.

광주시는 청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할 권리, 자립할 권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일할 권리를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벨리, 자동차산업 벨리, 문화산업 벨리 등 3대 산업벨리를 통해 일자리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일자리 진입을 위한 다양한 구직활동 지원,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합니다. 일자리의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을 확대합니다. 자립할 권리를 위해서는 청년주택 지원, 교통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위해 광주청년센터를 운영합니다.

청년의 행복으로 광주의 희망을 찾고자 달려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추진하는 계획 중에 어떤 일은 100미터를 앞서 달리기도 하고, 어떤 일은 이제 걸음마를 떼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힘들고 아파하는 것부터 약을 바르고 치유해서 같이 달렸습니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촛불의 광장으로 나온 광주청년들과 손잡고 가겠습니다. 촛불에 담은 소망처럼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소망하는 정의로운 세상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배려받고 포용되며,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취업난과 불안정한 처우 속에 사라진 것들입니다.

다시 광장에서 미래가 열립니다. 청년들이 꿈을 말하는 광장, 희망을 쏟아내는 광장, 미래를 상상하는 광장입니다. 촛불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주장

기업 유치 없이 청년 고용 없다



학생기자
전형준(24)

청년실업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으로 대두 된지 한참이다. 대졸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통계(2003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3년 대졸구직자를 약 68만명일 것이라고 해아렸지만 재계 100위에 드는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불과 2만명으로 2002년보다 10%를 줄였다.

2015년에 이르러선 대졸실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고 고졸실업자도 44만명이나 된다. 아르바이트 등 불안전 취업 등을 실업으로 계산한다면, 청년실업은 훨씬 많다고 봐야한다.

청년실업이 국가적 사안으로 대두된 지 한참이 지났다. 언론은 문제를 짚어내며 정책은 언론 혹은 트렌드를 따른다. 민감한 사안임에 따라 정부,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이 뒤따라 여러 가지가 시행되고 있다. 청년정책의 시행 뉴스를 접한 취업준비생의 부모들은 이를 곧바로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정책도, 지원도 체감하지 못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 사회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남시의 '청년 수당' 같은 경우 취지도 좋고 지원도 잘 되고 있어서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 유치 없이는 결국 의미 없는 사업이라 될 것이라 예단한다.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회통합추진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지역 대기업 노·사의 동참을 유도해왔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의 '상생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을 이뤄냈다. 노·사·정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로 된 것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의문들이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기는 이르다.

현 시국은 기업들이 재단의 출연금을 놓고 몇 십억씩 내놓는 판이다. 국가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과연 기업들이 묵인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행태일까? 대통령 측근의 한 여자의 사익을 위한 재단의 출연금은 약 700억씩이나 내놓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해 줄일이 없는 것인가 생각된다.

취업준비생들은 이 시간에도 취업을 위해 밤, 오로로 열중하고 있다. 학원비, 월세를 내지 못해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며, 살인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기성세대가 고통 분담해야할 문제이다.

청년들이여 돌을 던져라



민형배
광산구청장

한겨울, 꽁꽁 언 저수지 얼음을 깨볼 용으로 힘껏 돌을 던집니다. 몇 개를 던져봐도 두꺼운 얼음은 꿈쩍 않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던집니다. 어느 순간 '채앵~'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저수지 얼음바닥에 길게 금이 갑니다. 얼음의 급소를 뚫어 가격한 때문입니다.

이제 막 어른이 된 스무 살 언저리 청년들은 세상의 변화를 담당하는 세대입니다. 대개 중장년층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변화가 너무 쉽게, 자주 일어난다면, 그 세상에서 온전한 삶은 어렵습니다. 장마 뒤 출렁이는 강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처럼 혼란 속에서 삶이 파괴됩니다. 변화 없이 동일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또한 삶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웅덩이의 썩은 물처럼 되어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을 것입니다.

변화와 안정이 서로 적절한 긴장관계를 갖고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거듭해야 삶을 건강하게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바닷물을 뒤집어 생태계를 정화시키고, 이후에 찾아온 고요가 살아 있는 것들의 풍요로운 번식을 가능케 합니다. 이 같은 정화와 번식의 반복이 자연계의 질서이고 사람사는 세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변화가 멈춘 세상 같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정치권력의 잘못

때문입니다. 변화와 안정의 균형잡기를 맞췄는데 노획한 정치권력은 변화를 포기했습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정치권력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찮은 정치권력마저 이러한 탐욕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력만이 모든 악의 근원은 아닙니다. 청년의 짐목이 정치권력의 만행을 방조한 측면도 없잖습니다. 꼭 '낮은 투표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강의실에서, 알바 현장에서, 오늘날 청년들은 한없이 착합니다. 꽁꽁 언 저수지에 돌을 던지는 '지양스러운' 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안정의 총량이 있을 터인데 청년의 '착함'은 그 중 변화 에너지를 왜소하게 만듭니다.

물론, 청년들에게는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돈, 언론, 명, 정치권력, 학문 등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 대부분은장년층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장년층이 '먹고사니즘'으로 청년들에게 착함을 강제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실현하는 데 착하지 않은 청년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 돌을 던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별자로서 '어른'이 아니라 집합체로서 '어른들의 세계'라는 점만 유의해 주십시오. 돌을 던지는 행위는 예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갖추면서도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한 두 번 던지는 돌로는 저수지의 얼음장처럼 두터운 어른들의 세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해머를 들고 한 복판으로 들어가 부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그 경우 자신의 몸까지 저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수지 바깥에서, 그러니까 청년의 자리에서, 청년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십시오. 어느 순간 어른들의 세계에 금이 갈 것입니다. 계속 던지면 얼음장들이 조각나고, 그 틈으로 여럿이 함께 청년의 배를 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대문호 루쉰(魯迅 1881~1936)은 "청년들이 나를 믿고 오르거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청년이 가는 길에 노인은 길을 비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진다. 만약 청년이 가는 길에 웅덩이가 있으면 노인은 자기 몸으로 웅덩이를 매워야 한다. 노인의 등을 믿고 청년이 앞으로 전진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게 열린다는 것이 루쉰의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의 탐욕체계에 인이 박한 대다수 현실의 노인들은 결코 청년들에게 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웅덩이를 파 놓고 청년들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나쁜 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감히 제가 청년들에게 제 등을 내어 주겠다는 호기는 부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인들도 결코 적지 않으며 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 그리고 나이는 들었으나 청년처럼 살고자 하는 '청년노인'의 연대를 제안 드리며 저의 어설픈 선동을 마무리 짓습니다. 청년들이여, 저의 등을 타고 올라 더 멀리, 더 강하게 세상의 얼음장을 향해 돌을 던지십시오. 급소를 가격하십시오. 그래야 멋진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광주청년신문	
발행처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제작처	(주)곰강 네트워크
인쇄처	광주일보사
지도교수	조경완
학생기자	고동혁 구동환 김성용 김하니 류선형 박순근 쉬병신 신지아통 오 준 유승준 유재원 이기주 이영주 이현미 전요셉 전형준 조영문 최경택 후후이
본지는 부정기 간행물이며 6천부가 인쇄되어 광주광역시 일간지 구독세대 일부에 무료배포 되었습니다. 게재된 모든기사의 책임은 발행처인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있습니다. 문의=062-940-5266 본지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인용 및 전재에 한하여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본지는 호남대학교 실형실	

광산구가 청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1913 송정역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청년들

2016.11.19. 광산구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개관식

2016.06.11. 젊은이의 자유발언대 '청춘솔서'

광산구